

# 2016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및 2016년 2/4분기 전망(SBSI)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eunhyung@ricon.re.kr



## < 목 차 >

- |                     |                            |
|---------------------|----------------------------|
| I. 조사개요             | I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
| II. 전문건설업 경기평가 및 전망 | IV. 전문건설업 경영 애로사항          |

## 요 약

- 2016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2015년 4/4분기보다 8.2p 높은 67.1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15년 1/4분기와 동일한 수준임.
  - 작년 1분기의 조사치도 이번과 동일한 67.1이었음을 감안하면 1분기의 조사결과는 전문건설업의 업황개선보다는 계절에 따른 반등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또한 전년보다 증가한 1분기의 건설수주와 함께 정부재정집행계획까지 감안하면 앞으로도 공공주도의 건설공사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 하지만 민간공사물량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전국적인 상황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 2016년 2/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전망은 69.7로 이번 분기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공사착공물량 등의 시장상황에 비추어보면 2/4분기 역시 전년도의 추세를 따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음.

- 정부정책은 여전히 SOC예산의 조기집행같은 재정집행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택 인허가면적이나 건축용 자재에 대한 수요 등을 감안하면 이같은 예상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짐.

■ 하지만 대외경제여건 및 타 산업분야와의 연계없이 건설업만이 성장할 수는 없기에 현재의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소지가 있음.

〈2015년 4/4분기 평가 및 2016년 1/4분기 전망〉

구분	전체 BSI	기업규모			지역		업종		
		대	중	소	수도권	지방	건축중심	토목중심	
2012	1/4분기 평가	40.3	40.7	46.3	38.6	28.0	45.3	43.8	34.3
	2/4분기 평가	54.4	61.9	56.0	52.9	44.1	58.4	57.2	49.4
	3/4분기 평가	42.2	52.9	42.0	39.3	31.5	47.0	47.6	33.3
	4/4분기 평가	35.8	43.2	38.7	29.5	39.1	33.6	43.5	20.5
2013	1/4분기 평가	40.9	52.2	35.1	41.3	39.6	41.7	43.9	35.0
	2/4분기 평가	35.9	47.8	30.9	35.2	36.7	35.4	40.6	26.6
	3/4분기 평가	34.6	41.3	32.0	34.1	31.1	36.8	36.8	30.4
	4/4분기 평가	47.4	52.2	43.0	49.0	43.5	49.7	51.0	41.6
2014	1/4분기 평가	62.5	66.7	63.6	60.5	68.0	62.5	62.5	62.5
	2/4분기 평가	57.7	83.3	38.1	63.6	38.5	62.1	61.5	55.6
	3/4분기 평가	49.4	100.0	47.8	40.0	81.0	37.5	56.3	44.4
	4/4분기 평가	56.6	84.6	70.4	39.5	74.1	48.2	75.8	44.0
2015	1/4분기 평가	67.1	85.7	40.0	81.6	64.3	69.0	77.8	60.5
	2/4분기 평가	72.5	85.7	73.3	68.8	84.0	65.9	65.6	78.4
	3/4분기 평가	64.6	83.3	67.9	58.1	81.8	55.8	92.3	46.2
	4/4분기 평가	58.9	85.7	60.6	54.0	88.9	46.0	63.2	55.8
2016	1/4분기 평가	67.1	100.0	50.0	73.9	77.8	65.7	51.7	76.6
	2/4분기 전망	69.7	50.0	73.1	69.6	55.6	71.6	72.4	68.1

■ 2016년 1/4분기 전문건설업 세부항목별 지수를 2015년 4/4분기와 비교하면 총 8개 항목 중 5개 항목(공사대금수급·인력수급·인건비·자재수급·자재가격)은 상승, 2개 항목(원도급·자금조달)은 하락, 1개 항목(하도급)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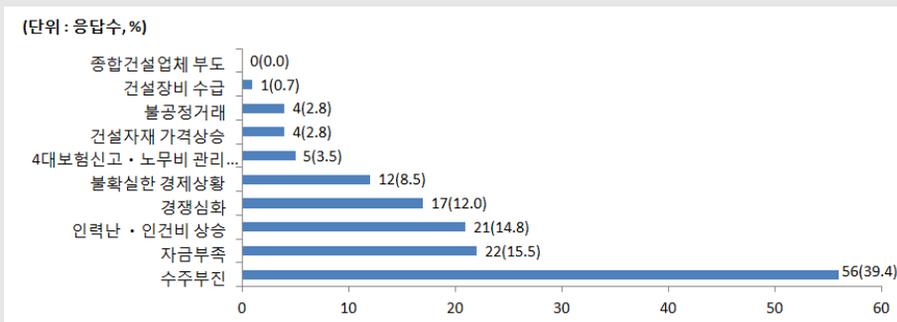
<세부항목별 2016년 1/4분기 평가 및 2016년 2/4분기 전망>

구분	전체	기업규모			지역		업종		
		대	중	소	수도권	지방	건축중심	토목중심	
원도급	실적	42.1	100.0	30.8	43.5	55.6	40.3	41.4	42.6
	전망	61.8	75.0	65.4	58.7	44.4	64.2	55.2	66.0
하도급	실적	59.2	100.0	42.3	65.2	77.8	56.7	55.2	61.7
	전망	67.1	50.0	69.2	67.4	55.6	68.7	65.5	68.1
공사 대금수급	실적	81.6	100.0	76.9	82.6	88.9	80.6	79.3	83.0
	전망	84.2	75.0	84.6	84.8	77.8	85.1	82.8	85.1
자금조달	실적	57.9	100.0	42.3	63.0	77.8	55.2	62.1	55.3
	전망	60.5	75.0	50.0	65.2	55.6	61.2	65.5	57.4
인력수급	실적	81.6	75.0	88.5	78.3	111.1	77.6	72.4	87.2
	전망	75.0	75.0	80.8	71.7	100.0	71.6	65.5	80.9
인건비	실적	55.3	100.0	61.5	47.8	100.0	49.3	58.6	53.2
	전망	60.5	100.0	61.5	56.5	100.0	55.2	69.0	55.3
자재수급	실적	98.7	75.0	100.0	100.0	122.2	95.5	110.3	91.5
	전망	94.7	75.0	100.0	93.5	122.2	91.0	103.4	89.4
자재가격	실적	64.5	100.0	57.7	65.2	77.8	62.7	75.9	57.4
	전망	57.9	75.0	57.7	56.5	77.8	55.2	69.0	51.1

■ 전문건설업체들이 지적하는 기업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수주부진’이 가장 많은 39.4%, ‘자금부족’이 15.5%이 가장 많았으며, ‘인력난·인건비 상승’은 지난 분기(6.7%)보다 크게 늘어난 14.8%로 조사됨.

- 경쟁심화(12.0%), 불확실한 경제상황(8.5%), 보험신고와 노무비관리 등 현장관리의 어려움(3.5%), 건설자재 가격상승(2.8%), 불공정거래(2.8%), 건설장비수급(0.7%)의 순으로 나타남. 이번 조사에서는 불공정거래를 지적한 응답비율이 지난 조사(0.6%)보다 높았으며 종합건설업체부도(0.0%)라는 응답은 없었음.

<2016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경영애로사항>



## I 조사개요

### 1. 조사배경 및 목적

- 경기변동은 기업활동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동시에 기업가의 의도나 심리작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 경기실사지수는 다른 경기지수와 달리 내수, 수출, 설비투자, 고용수준 등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인까지도 조사할 수 있음. 또한 조사방식이 설문조사를 통해 신속히 이루어지므로 경기대응성이 높고, 경제통계로는 포착할 수 없는 기업활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수량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현재 경기실사지수는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기획재정부, 무역협회 등 여러 기관에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건설산업의 경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음.
- 전문건설업은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특히 건설시공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경기전망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황임<sup>1)</sup>.
  - 또한 건설, 제조, 설비 등 산업에서 하도급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하도급업체의 경기인식과 판단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부족했음.
  - 본 조사는 하도급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 타 조사에 비해 중소기업체들의 경기에 대한 인식이 잘 나타나는 특징을 가짐.
- 전문건설업의 경기실사지수 조사 분석은 향후 경기전망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대내외 위상 제고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임.

1) 전문건설업체는 경기실사지수는 2009년부터 분기별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2. 조사내용

- 2016년도 1/4분기 전문건설업의 경기판단과 향후 2016년 2/4분기 경기전망 조사를 위해 총 10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전문건설업 경기판단, 세부항목(공사물량, 자금사정, 인력수급, 자재수급) 및 경영애로사항으로 구성됨.

표 1 | 설문조사 내용

구 분		조 사 내 용
사업체 개요		- 기업명 및 작성자 일반사항
건설 경기 전망	건설경기 (전분기대비 금분기)	- 전반적 경기실적
	항목별 건설경기 (전분기대비 금분기)	- 공사물량 (원도급, 하도급) - 자금사정 (공사대금수급, 자금조달) - 인력수급 (인력수급, 인건비) - 자재수급 (자재수급, 자재가격)
	차기분기 건설경기 전망	- 공사물량 (원도급, 하도급) - 자금사정 (공사대금수급, 자금조달) - 인력수급 (인력수급, 인건비) - 자재수급 (자재수급, 자재가격)
경영애로사항		- 애로사항 및 정책적 요구사항 기술

## 3. 조사대상 및 방법

-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회원사 중에서 선별된 308개사의 모니터링단에게 건설경기 판단에 관한 자체식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의 표본은 기업규모(대·중·소)와 본사 소재지(수도권·지방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
  - \* 기업규모는 2014년 시공능력평가액(업종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구분함. 대형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 544억원 이상, 중형업체는 69억원 이상 544억원 미만, 소형업체는 69억원 미만인 업체로 구분함.
  - \* 본사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를 수도권, 그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를 지방권으로 구분함.

## ●● 건설동향

- 설문지를 배포한 308개사는 수도권 업체가 99개사(32.1%), 지방권 업체는 209개사(67.9%)로 이루어짐.
- 설문지를 배포한 308개사 중 76개사(회수율: 24.7%)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에 활용됨.
  - 설문지가 회수된 76개사는 대형업체 4개사(5.3%), 중형업체 46개사(60.5%), 소형업체 26개사(34.2%)로 구성됨. 이중 수도권 업체는 9개사(11.8%), 지방권 업체는 67개사(88.2%)로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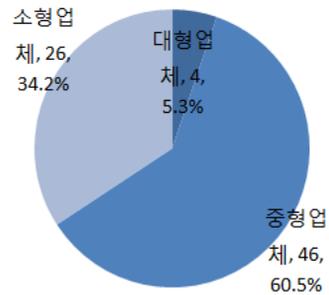
표 2 |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를 위한 설문지 배포 및 회수현황

구분	배포(개사, %)	회수(개사, %)
수도권	99(32.1)	9(11.8)
지방권	209(67.9)	67(88.2)
전체	308(100.0)	76(100.0)

표 3 | 응답업체의 기업규모별 현황

(단위 : 개사, %)

구분	업체수(%)
대형업체	4(5.3)
중형업체	46(60.5)
소형업체	26(34.2)
전체	76(100.0)



- 응답업체들의 주업종별<sup>2)</sup> 분포는 토공사업이 15개사(19.7%),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 13개사(17.1%), 철근콘크리트공사사업 9개사(11.8%), 금속구조물창호공사사업 7개사(9.2%), 도장공사사업이 7개사(9.2%), 조경식재공사사업 5개사(6.6%), 석공사사업 5개사(6.6%), 포장공사사업 3개사(3.9%), 기타 공사사업 12개사(15.9%)로 나타남.

2) 응답업체들은 다수 면허를 보유할 수 있으므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파악함

표 4 | 응답업체의 업종별 현황

구 분	업체수(%)	구 분	업체수(%)	구 분	업체수(%)
토 공	15(19.7)	금속창호	7(9.2)	석공사	5(6.6)
상하수도설비	13(17.1)	도 장	7(9.2)	포 장	3(3.9)
철근콘크리트	9(11.8)	조경식재	5(6.6)	기 타	12(15.9)
합계			76(100.0)		

- 한편 전문건설업의 업종별 분석을 위해 건축 및 토목중심 업종을 공사의 특성과 성격을 고려하여 <표-5>와 같이 구분함.

표 5 | 전문건설업 업종 구분 기준

구 분		업 종
전문건설업	건축중심 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석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등
	토목중심 업종	토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공사업 등

## II 전문건설업 경기평가 및 전망

### 1. 2016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평가 및 전망

- 2016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2015년 4/4분기보다 8.2p 높은 67.1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15년 1/4분기와 동일한 수준임.
  - 이는 건설공사의 비수기인 겨울이 지나면서 발생한 계절적인 반등으로 평가할 수 있음. 더구나 전년 동기의 조사치가 이번과 동일한 67.1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결과는 전문건설업의 획기적인 경기개선보다는 계절에 따른 예년의 수준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임.
  - 1분기의 건설수주는 전년보다 증가했으나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축부문과 토목부문,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전연에도 유사한 상황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상위 10% 업체가 해당 지역 공사실적의 70%를 신고한 사례도 알려진 바 있음.
  - 하지만 이번 1분기의 정부재정집행계획의 규모가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고, 빠른 재정집행을 위해 발주와 계약체결기간 등의 절차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공공주도의 건설공사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음<sup>3)</sup>.
  - 여전히 주의할 점은 주택 등의 민간공사물량임. 가령 금년의 경우 재개발과 재건축의 일반분량 물량이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전국적인 민간공사물량의 확대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 2016년 2/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전망은 69.7로 이번 분기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공사착공물량 등의 시장상황에 비추어보면 2/4분기 역시 전년도의 추세를 따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음.
  - 이는 금년의 정부정책이 최근의 추세와 동일하게 1분기부터 SOC예산을 공격적으로 조기집행하는 등의 정부재정의 집행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임.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공부문을 통한

3) 물론 평창올림픽 관련 시설공사의 발주가 대부분 완료된 강원지역처럼 추가적인 공공공사 물량의 확대가 여의치 않은 곳도 있으므로, 공공발주를 전국적인 건설공사물량의 확대로 간주하기는 쉽지 않음

공사발주물량이 지금의 건설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함.

- 이에 더해 지난 1월만 보더라도 주택인허가실적이 전월 대비 약 50%, 전년 동월 대비로는 40% 이상 증가했고 이들 상당수가 정비사업지구(재개발/재건축)의 건축물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수년간 억제되었던 민간부분의 수요가 표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2분기 전망에 설득력을 더한다고 볼 수 있음.
- 단열재와 내외장재같은 주택용 자재뿐만 아니라 철근과 레미콘, 합판과 콘크리트 파일 등의 일반적인 건축용 자재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건설경기예 1~2년 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엘리베이터 시장도 작년<sup>4)</sup>의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국내 타 산업분야와 동떨어져 건설업만이 성장할 수는 없기에 현재의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소지가 있음.
  - 금년의 건설투자증가율은 그간의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경제성장률에 대한 우려<sup>5)</sup>는 지속되고 있음. 더구나 한국의 대외수출액이 지난 2월까지 14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 등을 감안하면 대외경제여건이 국내 건설산업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문제라고도 할 수 있음.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형업체는 2015년 4분기보다 14.3p(85.3점 → 100.0점)증가, 중형업체는 10.6p(60.6점 → 50.0점)하락, 소형업체는 19.9p(54.0점 → 73.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조사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2014년 4분기부터 줄곧 80점대 중반을 유지하던 대형업체의 응답결과가 크게 높아졌다는 점임. 반면 중형업체의 응답은 작년 2분기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했으며 소형업체의 응답결과는 지난 분기보다 크게 상승함.

4) 지난 해에 역대 최대의 설치대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짐

5) 주요 기관들의 금년 세계경제성장률 평균은 지난 해의 3.1%보다 낮은 2.9%로 알려졌으며, 국내 경제성장률 역시 2%대로 전망하는 의견이 주류임

표 6 | 2015년 4/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2016년 1/4분기 전망 (비교)

구분	종합	기업규모			지역		업종		
		대	중	소	수도권	지방	건축중심	토목중심	
2009	1/4분기 평가	39.0	29.5	42.6	40.2	35.7	40.1	33.2	52.6
	2/4분기 평가	46.9	50.0	48.9	44.9	52.9	45.0	47.5	45.6
	3/4분기 평가	52.6	52.0	50.8	54.2	62.3	49.6	51.4	55.3
	4/4분기 평가	40.1	44.4	36.1	41.1	39.4	40.3	39.8	40.8
2010	1/4분기 평가	41.4	37.5	45.0	40.3	42.5	40.9	40.6	43.0
	2/4분기 평가	40.8	44.4	39.4	40.8	44.0	39.8	41.8	38.9
	3/4분기 평가	22.2	25.0	18.3	24.2	23.3	21.8	24.2	19.0
	4/4분기 평가	35.0	41.2	35.9	31.6	32.1	36.0	38.3	29.5
2011	1/4분기 평가	23.9	31.3	27.8	22.2	30.0	21.4	27.3	17.8
	2/4분기 평가	38.8	75.0	25.0	38.9	40.6	38.1	42.2	31.4
	3/4분기 평가	34.4	16.7	47.6	33.9	31.9	35.5	37.6	29.7
	4/4분기 평가	30.8	30.0	32.9	32.3	36.9	32.3	36.0	24.6
2012	1/4분기 평가	40.3	40.7	46.3	38.6	28.0	45.3	43.8	34.3
	2/4분기 평가	54.4	61.9	56.0	52.9	44.1	58.4	57.2	49.4
	3/4분기 평가	42.2	52.9	42.0	39.3	31.5	47.0	47.6	33.3
	4/4분기 평가	35.8	43.2	38.7	29.5	39.1	33.6	43.5	20.5
2013	1/4분기 평가	40.9	52.2	35.1	41.3	39.6	41.7	43.9	35.0
	2/4분기 평가	35.9	47.8	30.9	35.2	36.7	35.4	40.6	26.6
	3/4분기 평가	34.6	41.3	32.0	34.1	31.1	36.8	36.8	30.4
	4/4분기 평가	47.4	52.2	43.0	49.0	43.5	49.7	51.0	41.6
2014	1/4분기 평가	62.5	66.7	63.6	60.5	68.0	62.5	62.5	62.5
	2/4분기 평가	57.7	83.3	38.1	63.6	38.5	62.1	61.5	55.6
	3/4분기 평가	49.4	100.0	47.8	40.0	81.0	37.5	56.3	44.4
	4/4분기 평가	56.6	84.6	70.4	39.5	74.1	48.2	75.8	44.0
2015	1/4분기 평가	67.1	85.7	40.0	81.6	64.3	69.0	77.8	60.5
	2/4분기 평가	72.5	85.7	73.3	68.8	84.0	65.9	65.6	78.4
	3/4분기 평가	64.6	83.3	67.9	58.1	81.8	55.8	92.3	46.2
	4/4분기 평가	58.9	85.7	60.6	54.0	88.9	46.0	63.2	55.8
2016	1/4분기 평가	67.1	100.0	50.0	73.9	77.8	65.7	51.7	76.6
	2/4분기 전망	69.7	50.0	73.1	69.6	55.6	71.6	72.4	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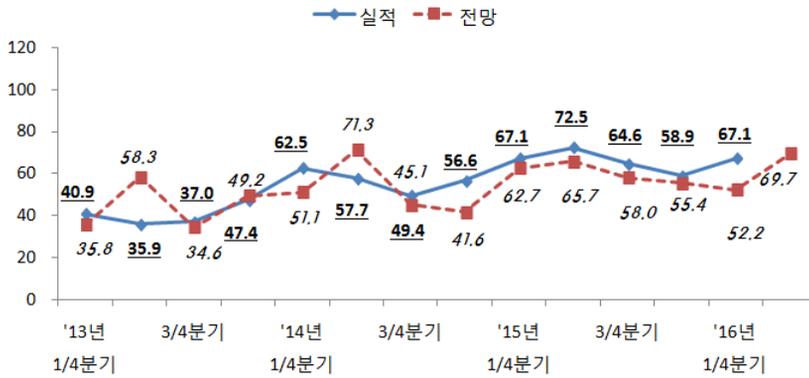


그림 1 |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실적 및 전망 추이

○ 2016년 1/4분기 지역별 경기실사지수는 수도권업체는 77.8로 하락, 지방권업체는 65.7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으며, 2016년 2/4분기 전망은 수도권은 이번보다 크게 하락한 55.6, 지방권은 71.6으로 상승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나타남.

- 비록 지방권에서 지수의 상승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것이 전국 공통이거나 지방의 모든 전문건설업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1/4분기 업종별 경기실사지수는 건축중심 업종과 토목중심 업종이 각각 51.7과 76.6으로 큰 격차를 나타냈으며 2016년 2/4분기 전망은 건축중심 업종은 72.4로 크게 상승, 토목중심 업종 68.1로 1/4분기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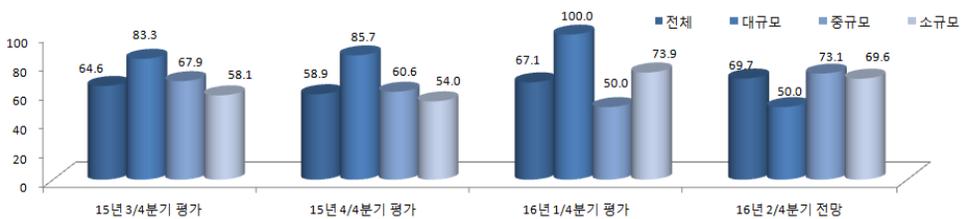


그림 2 |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추이(기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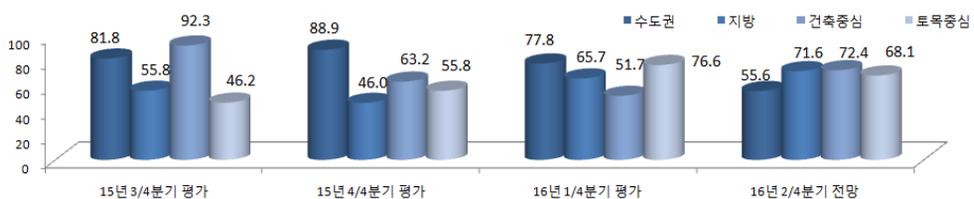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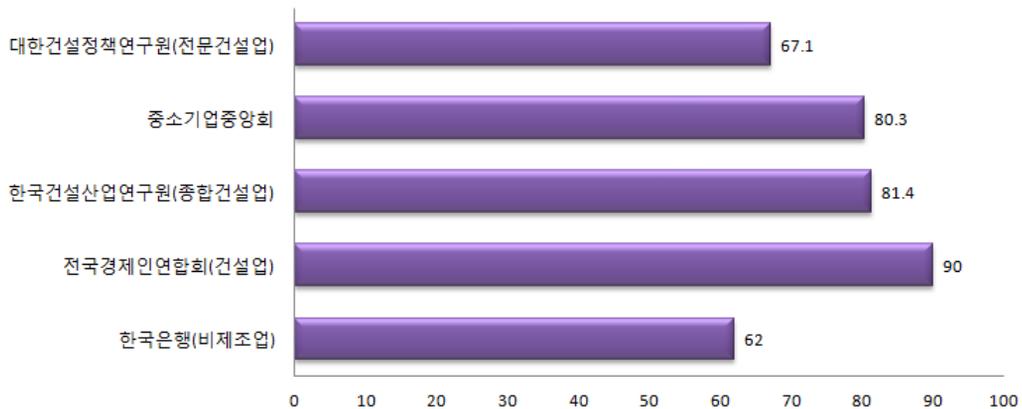


그림 3 |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추이(지역 및 업종별)

## 2. 기관별 경기실사지수 비교<sup>6)</sup>

- 2016년 1/4분기의 기관별 경기실사지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90.0(106.2점 → 90.0점), 한국은행(건설(비제조업))이 62(65점 → 62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81.4(86.7점 → 81.4점), 중소기업중앙회<sup>7)</sup>는 80.3(81.5점 → 80.3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sup>8)9)</sup>는 67.1(58.9점 → 67.1점)로 나타남
- 타 기관들의 조사치가 종전과 유사하거나 하락한 반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조사치는 상승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시장환경에 대한 전문건설업체들의 인식이 종합건설업체들에 비해 일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임. 일례로 전년도의 경우 타 기관들의 조사치가 상승추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매 분기별로 하락한 바 있음.



자료 : 각 기관 발표자료 (타 기관은 2016년 3월 조사결과)

| 그림 4 | 기관별 경기실사지수

- 6) 타 기관 조사자료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경기실사지수와 유사한 조사시점의 수치값인 2015년 4분기는 동년 12월 조사치, 2016년 1분기는 동년 3월의 조사치를 비교함. 월별로 조사되어 동일 분기 내에서도 등락이 나타나는 타 기관의 경기실사지수와 달리 분기별로 시행되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경기실사지수는 동일 기간 동안 발생하는 등락폭을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함
- 7) 중소기업중앙회는 경기실사지수(BSI)가 아닌 5점 척도로 조사된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를 발표하는데 이는 월간 조사이지만 그 추세를 기존 경기실사지수(BSI)와 비교하기 위해 추가함
- 8) 통상적으로 전문건설업의 경기실사지수는 타 기관의 조사결과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에 속한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하도급 중심의 영업활동 등 구조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임
- 9) 전문건설업은 시장에 참여하는 업체수가 많음에 따라 완전경쟁에 가까운 시장구조 형태가 되어 이들 기업의 수익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뿐만 아니라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건설경기가 개선되더라도 체감 정도가 낮고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음을 유의해야 함

### Ⅲ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 1. 공사물량지수 (원도급, 하도급)

- 2016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공사물량지수는 원도급이 42.1(54.4점 → 42.1점)로 하락, 하도급은 59.2(58.9점 → 59.2점)로 지난 분기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앞서 살펴본 전문건설업 경기지수가 작년 1분기와 같은 수준인 반면 원도급 공사물량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그간 언론 등에서 다룬 건설공사물량의 증대가 실질적으로는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으로도 평가할 수 있음. 실제로 원도급 공사물량지수와 달리 이번의 하도급 공사물량지수는 작년 1분기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함.
  - 공사물량지수의 평가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기업규모에 비례했으며 마찬가지로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지방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업종별로는 원도급은 건축중심업체가 토목중심업체보다 높게, 하도급은 양쪽이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됨. 나타남.
- 특히 원도급 공사물량지수가 최근 4개 분기동안 줄곧 큰 폭으로 하락하는 동안 하도급 공사물량지수는 소폭의 등락을 보이며 유사하는 수준을 나타낸 것은 하도급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때문에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에도 건설현장의 중추를 맡고 있는 전문건설업이 처한 환경이 더욱 반영되어야 함.
- 2016년 2/4분기의 공사물량지수 전망은 원도급은 1/4분기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하도급 역시 개선될 것으로 나타남. 그렇지만 이는 공사수행에 적합하다는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전문건설업체들의 기대감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원도급 공사물량에 대한 결과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특히 1분기에 이은 정부의 재정조기집행과 함께 금년에 늘어난 민간공사 등 공사물량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현 시점에서 원도급 공사물량의 증가예상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음.

표 7 | 2016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공사물량지수 (비교)

구분	종합	기업규모			지역		업종		
		대	중	소	수도권	지방	건축중심	토목중심	
원도급	'16년 1/4분기 평가	42.1	100.0	30.8	43.5	55.6	40.3	41.4	42.6
	'16년 2/4분기 전망	61.8	75.0	65.4	58.7	44.4	64.2	55.2	66.0
하도급	'16년 1/4분기 평가	59.2	100.0	42.3	65.2	77.8	56.7	55.2	61.7
	'16년 2/4분기 전망	67.1	50.0	69.2	67.4	55.6	68.7	65.5	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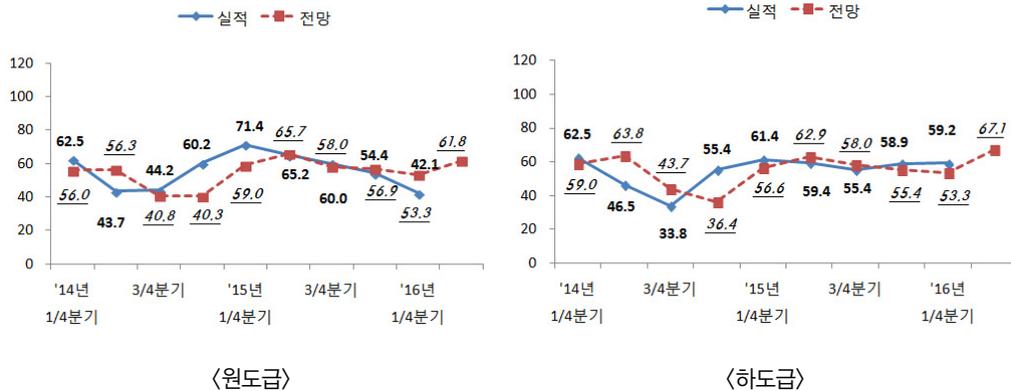


그림 5 | 원·하도급 공사물량지수 추이

##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2016년 1/4분기의 전문건설업 자금관련지수의 조사결과는 공사대금수금은 81.6(80.0점 → 81.6점)으로 2015년 4/4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자금조달지수는 57.9(63.3 → 57.9점)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살펴보면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지난 2015년 1분기부터 나타난 하락추세가 잠시 꺾인 것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크게 하락한 수준임. 이같은 결과는 근래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발주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있지만 여전히 민간공사 등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의 공사대금수금이 원활치 못한 상황이 남아있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음.
  - 자금조달지수는 2015년 2분기부터의 하락추세를 이번에도 이어갔는데 이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건설공사물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선업 등 타 구조조정 대상분야와 함께 건설업이 안고 있는 위험업종<sup>10)</sup>의 한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업규모별 공사대금수금지수는 대형업체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소형과 중형업체의 순으로 낮았으나 대형업체의 2분기 전망은 이번 분기보다 크게 하락할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지방보다, 업종별로는 토목중심업체가 건축중심업체가 소폭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자금조달지수는 대형업체가 가장 높았으며 중·소형업체와의 격차가 매우 컸음.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업종별로는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건축중심업종이 토목중심업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2/4분기의 자금관련지수 전망은 공사대금수금이 84.2로 이번 1/4분기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자금조달지수 역시 60.5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건설업종에 대한 금융권의 심사는 매우 엄격한 상황으로 추후 건설경기의 호조 등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전문건설업체들이 체감하는 자금상황이 개선되겠지만 단시일에 가시적인 결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표 8 | 2016년 1/4분기 전문건설업 자금관련지수 (비교)

구분	종합	기업규모			지역		업종		
		대	중	소	수도권	지방	건축중심	토목중심	
공사대금	'16년 1/4분기 평가	81.6	100.0	76.9	82.6	88.9	80.6	79.3	83.0
	'16년 2/4분기 전망	84.2	75.0	84.6	84.8	77.8	85.1	82.8	85.1
자금조달	'16년 1/4분기 평가	57.9	100.0	42.3	63.0	77.8	55.2	62.1	55.3
	'16년 2/4분기 전망	60.5	75.0	50.0	65.2	55.6	61.2	65.5	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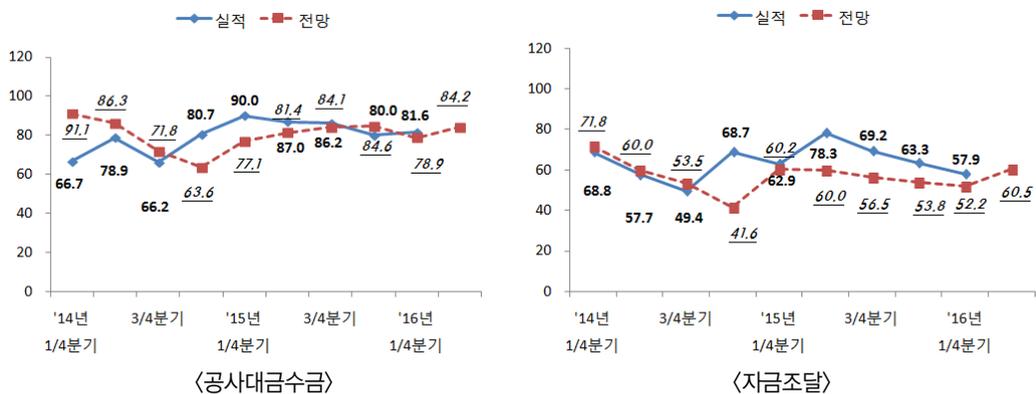


그림 6 | 전문건설업 자금관련지수 추이

10) 5개 위험업종(건설, 부동산PF, 조선, 해운, 철강)을 의미. 참고로 지난 해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각각 8개와 11개 주요 건설사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바 있음.

### 3. 인력수급 및 인건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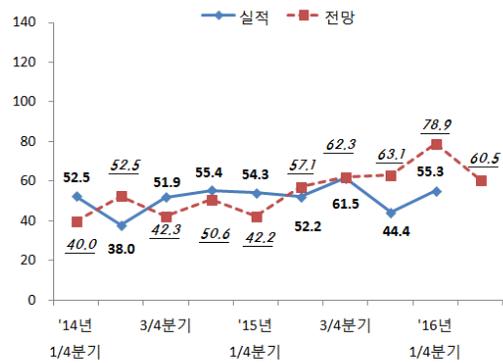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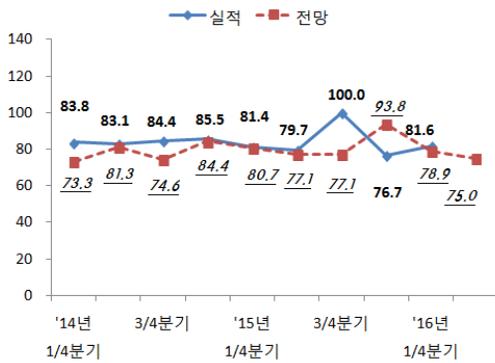
- 2016년 1/4분기의 인력수급지수는 81.6(76.7점→81.6점)으로 2015년 1/4분기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인건비지수는 55.3(44.4점→55.3점)으로 지난 분기보다 크게 상승함.
- 작년의 3/4분기 조사에서 100.0을 기록했던 인력수급지수가 이번 조사에서는 81.6으로 떨어졌지만 이를 최근 2년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다소 악화된 수준으로 볼 수 있음. 이는 지역에 따라 공사물량의 편차가 있는 것처럼 인력수요에도 지역별 편차가 있다는 점이 반영되면서 발생한 결과로 추정됨<sup>11)</sup>.
  - 건설현장에서는 공사물량과 공정 등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인력수요가 발생하지만 이같은 수요가 지역이나 시기적으로 균일하지 못함에 따라 숙련공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음. 더구나 건설기술을 교육받은 인력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건설현장으로 유입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남아있지 못하는 경우도 이같은 현황에 영향을 미침.
- 기업규모별 인력수급지수는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중형업체가 가장 높았고 대형과 소형업체는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됨.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지방보다 크게 높았는데 이는 전 분기와 동일한 추세이며, 업종별로는 토목중심업종이 건축중심업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 인건비지수는 종전과 달리 대형업체가 가장 높았으며 대형업체와 중형·소형업체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에 따른 인건비 체감정도의 차이를 반영함. 지역별로는 인력수급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크게 높았고 업종별로는 건축중심업종이 토목중심업종보다 소폭 높게 나타남.
  - 이번 조사결과처럼 인력수급과 인건비지수 모두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큰 폭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공사물량 이외에도 건설현장의 환경과 인구 등 지역에 따른 편차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11) 인력수급지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공사수수나 공사대금수급 등에서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풍부한 건설인력의 수요로 인해 특히 인건비지수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2/4분기의 인력수급지수는 75.0으로 하락, 인건비지수는 60.5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계절적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같은 추세는 2/4분기 이후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표 9 | 2016년 1/4분기 전문건설업 인력수급 및 인건비지수 (비교)

구분	종합	기업규모			지역		업종		
		대	중	소	수도권	지방	건축중심	토목중심	
인력수급	'16년 1/4분기 평가	81.6	75.0	88.5	78.3	111.1	77.6	72.4	87.2
	'16년 2/4분기 전망	75.0	75.0	80.8	71.7	100.0	71.6	65.5	80.9
인건비	'16년 1/4분기 평가	55.3	100.0	61.5	47.8	100.0	49.3	58.6	53.2
	'16년 2/4분기 전망	60.5	100.0	61.5	56.5	100.0	55.2	69.0	55.3



〈인력수급〉

〈인건비〉

그림 7 | 전문건설업 인력수급 및 인건비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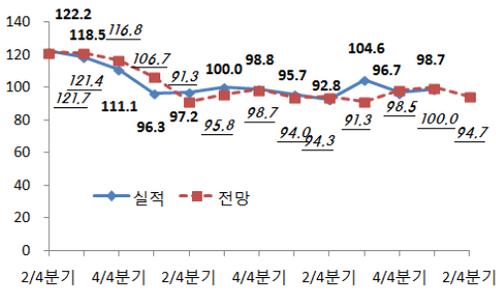
#### 4. 자재수급 및 자재비지수

- 2016년 1/4분기의 자재수급지수<sup>12)</sup>는 98.7(96.7점 → 98.7점)로 나타나 2015년 4/4분기와 유사한 것으로, 자재비지수는 64.5(61.1점 → 64.5점)로 지난 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sup>13)</sup>.
-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편차는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꾸준히 자재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에서 지적되는 자재수급문제는 주로 자재가격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짐.
  - 대표적인 자재인 레미콘<sup>14)</sup>의 경우에는 8.5제<sup>15)</sup> 시행의 여파로 일부 현장에서는 일일 레미콘타설량이 기존의 1/3 수준으로 줄었다는 지적도 있음. 하지만 본래 레미콘의 단가가 높은 편에 속하던 지역에서는 아직 8.5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아 건설현장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철근<sup>16)</sup>공급에 대한 논란 역시 철근가공단가 인상분의 부담주체에 대해 건설사와 제강사, 그리고 철근가공업체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벌어진 것으로 철강재의 재고부족에 기인한 문제는 아님.
  - 고강도콘크리트파일이나 골재는 물론 플라이애시와 슬래그파우더같은 자재가격까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 사상 최대라는 전년도의 주택인허가물량과 함께 지금까지 보고된 건설수주액 등으로 미루어보면 단시일에 간헐자재의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이같은 자재가격의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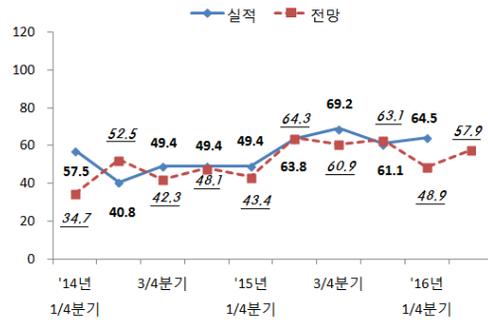
12) 동 항목은 2013년까지 100~120 사이의 조사치를 보였으나 2014년부터 90대로 하락해 그 추세를 이어옴  
 13) 통상 자재수급지수는 자재비지수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은 하도급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나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자재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고, 실무적으로도 현재의 건설환경에서 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쉽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임. 하지만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조정받기 어려운 등의 이유로 인해 자재비는 공사원가상승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기도 함  
 14) 레미콘의 경우 시멘트와 골재, 수송비와 인건비가 주요 가격인상요인으로 현재는 건설업계, 레미콘업계, 시멘트업계간의 협의체가 가격조정을 담당하고 있음. 물론 이와 별도로 건설업계와 레미콘 업계, 레미콘 업계와 시멘트업계간의 가격협상도 이루어지고 있음  
 15) 레미콘 운반차량들의 오전 8시 출근과 오후 5시 퇴근 제도를 의미  
 16) 철근의 경우 건설업계와 제강업계는 2014년부터 '선 가격결정-후 공급(분기별로 철근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공급)' 방식을 도입함

표 10 | 2016년 1/4분기 전문건설업 자재수급 및 자재비지수 (비교)

구분	종합	기업규모			지역		업종		
		대	중	소	수도권	지방	건축중심	토목중심	
자재수급	'16년 1/4분기 평가	98.7	75.0	100.0	100.0	122.2	95.5	110.3	91.5
	'16년 2/4분기 전망	94.7	75.0	100.0	93.5	122.2	91.0	103.4	89.4
자재비	'16년 1/4분기 평가	64.5	100.0	57.7	65.2	77.8	62.7	75.9	57.4
	'16년 2/4분기 전망	57.9	75.0	57.7	56.5	77.8	55.2	69.0	51.1



〈자재수급〉



〈자재비〉

그림 8 | 전문건설업 자재수급 및 자재비지수 추이

## IV 전문건설업 경영애로사항<sup>17)</sup>

- 전문건설업체들이 지적하는 기업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수주부진’이 가장 많은 39.4%, ‘자금부족’이 15.5%이 가장 많았으며, ‘인력난·인건비 상승’은 지난 분기(6.7%)보다 크게 늘어난 14.8%로 조사됨.
- 그 다음으로는 경쟁심화(12.0%), 불확실한 경제상황(8.5%), 보험신고와 노무비관리 등 현장관리의 어려움(3.5%), 건설자재 가격상승(2.8%), 불공정거래(2.8%), 건설장비수급(0.7%)의 순으로 나타남<sup>18)</sup>.
- 이번 조사에서는 불공정거래를 지적한 응답비율이 지난 조사(0.6%)보다 높았으며 종합건설업체 부도(0.0%)라는 응답은 없었음.

(단위: 응답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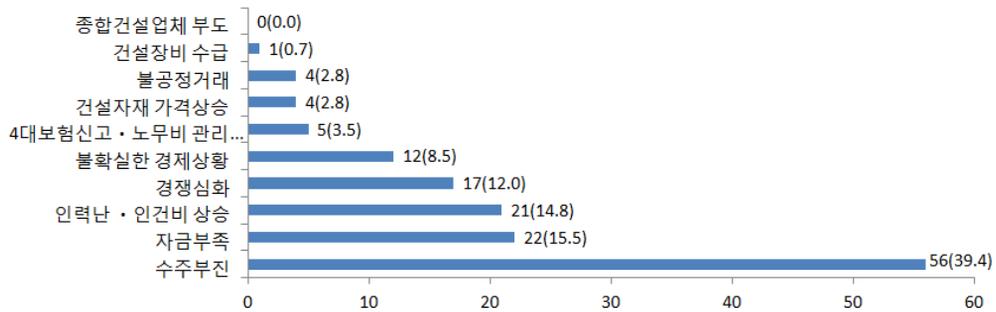


그림 9 | 전문건설업 경영애로사항(2016년 1/4분기)

17) 본 항목에서는 응답업체의 복수응답을 허용함

18) ‘현장관리’와 ‘건설장비수급’ 항목은 2014년 1/4분기 조사부터 추가됨